

‘한국교회 새로운 변신’ 한기총이 앞장

한기총 제17대 대표회장에 길자연 목사 당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제17대 대표회장에 길자연 목사가 당선됐다.

구랍 21일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21-3차 실행위원회에서 길자연 목사는 총투표수 186표 중 125표를 득표해 59표를 득표한 김동원 목사를 누르고 대표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 엄신형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후보소개, 4분간 후보자들의 최종 소견 발표 후 1차 투표에 들어갔다. 1차 투표 결과 길자연 목사가 과반수가 넘는 125표를 득표해 2차 투표없이 무난하게 당선, 엄신형 목사로부터 당선증을 수여받았다. 길목사는 한기총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기 전까지는 차기 대표회장으로 불리게 되며 2011년 1월 중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공식적인 대표회장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길목사는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의 핵심은 화합과 일체”라고 전제하고 “제도보다 사람을 우선

해서 한기총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히며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한국교회를 위해 한기총이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의 두 번의 대표회장 때는 열정만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고 말하며 “오고 싶은 한기총, 앉아서 될 수 있는 한기총, 상처를 받지 않는 한기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길목사는 처치스테이와 관련해 “평소 기독교박물관 건립 등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회적 논란도 있지만 선거공약의 한가지로 기도원과 교회와 연계하여 기초를 놓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러진 예배에서는 정인도 목사가 사회, 강진문 목사가 기도, 이만신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예배 후 이어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회의에 들어갔다.

이만신 목사는 설교에서 “새로운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겸손과 온유의 미덕으로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선거 전날까지 고소고발과 불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 초반 후보자들에 대한 양측의 법원 고소는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길

자연 후보의 자격상실 결정요청과 실행위원회 이원희 목사의 불법선거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선거 전날인 구랍 20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법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한기총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선관위에서 직접 후보자격 상

실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실행위원들에 보고하여 실행위에서 투표로 판단해 줄 것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예상 밖의 증경총회장 유만석 목사의 제안으로 구랍 17일 제 20-11차 임원회에서 통과된 장재형 목사와 변승우 목사의 이단해제 결정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됐다. 실행위원들 간 격렬한 토론 끝에 임원회 결의 무효와 한기총 이대위 해체 안이 투표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날 투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지원 국가 정책 즉각 중단’ 촉구

템플스테이대책위, 국가예산 종교지원 중지돼야



국고지원 템플스테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목사·원내사진)는 구랍 1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재정으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장 이상민 목사, 총무 오세원 목사 등 이날 대책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전통문화보존 차원에서 오래된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적극 찬성하고 인정하지만, 새롭게 건물을 짓고 확장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고 “혹시라도 편법이나 불법으로 템플스테이 등 재정지원을 계속한다면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정부의 특정 종교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불교계에서 템플스테이 정부재정지원을 거부하고 불교계에게

산으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함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펴느냐에 반대하는 것이 불교계와 갈등과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이제 우리나라도 G20을 주최할 정도로 세계선진국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섬기며 지원하는 성숙한 종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교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지원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종교에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한국노숙자선교연합회 제10주년 기념행사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한국노숙자선교연합회 제10주년 기념행사가 구랍 18일(토) 오후 1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려 연발연시 추위와 외로움으로 고

통받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사)한민족흥복찾기 국민운동본부와 한국노숙자선교연합회(총재 정훈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식전행사, 2부 예배, 3부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치러졌다.

이행장, 김보라 복음가수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참가자들은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유원욱 공동총재의 개회사로 시작된 예배는 정훈 총재의 부부기립강, 홍옥화 대변인의 내외빈 소개, 양홍식 대표회장의 경과보고, 이옥자 부총재의 특

별기도, 호남신학원 학우들의 특송, 정훈 총재의 대회사, 예정연 이사장 조성훈 목사의 말씀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잠 3:29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관리의 삶”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노숙자들의 지할, 새 삶의로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 등에 대해 역설하고 노숙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박찬종 명예총재의 축사, 허평환 전 보안사령관의 축사, 서경석 목사의 축사, 정훈 총재의 공로상표창, 조성자 운영이사의 축사, 최용완 사무총장, 전희평 후원회장의 결의분 낭독, 상임총재 박천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고 3부 순서로 신대잔치와 축하공연을 갖고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찬양과 축하공연을 통해 이들을 위로했다.

순수 동문회 역할, 새출발 강조

개신대 총동문회, 신입회장에 박영길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나용화 목사) 총동문회 제17회 정기총회가 구랍 23일 개신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총동문회장 박영길 목사를 선출하고 임원진을 개설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교단의 분열과정에서 상당수 임원진들이 결원되는 등 위축된 총동문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교단 정치와 거리를 두고 모교 발전 사업 등 순수한 동문회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두자며 새출발을 다짐했다.

박 신임 총동문회장은 취임사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구성된 임원들과

더불어 총동문회 활성화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예배는 박만진 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경삼 목사(예장 개척 총회장)의 ‘학문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설교, 나용화 박사(개신대 총장)의 격려사, 조경대 목사(개신대 이사장)의 축도로도 마쳤다.

이러진 총회에서는 각부 보고에 이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박영길 목사를 신입회장에 선출했다. 기타 안건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개방을 위해서는 명칭을 개신대 학원대학교 신학대학원총동문회로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열린 토론회 끝에 취지는 공감하나 차후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동문회장: 박영길 목사, 수석부회장: 류영근 목사, 서기: 조세영 목사, 부서기: 모경출 목사, 회록서기: 허금식 목사, 부회록서기: 문종식 목사, 회계: 박만수 목사, 부회계: 백승철 목사, 상임총무: 전상민 목사, 부총무: 조강희 목사, 기획실장: 한영 목사, 감사: 최진기 목사, 하영진 목사

특별기고



짜통통합의 해여! 안녕!

이원희 목사

전국 대학교수들이 설문조사로 인하여 뽑은 2010년의 사자(死字)는 장두노미(張頭露尾)라고 했다. 몸통은 광주리만 하게 크고 다리와 목은 긴 타조가 성큼 성큼 다급하게 쫓기다가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로 숨는다고 숨는 것이 마린만 우선 탐볼에 쫓겨 박고 몸통과 허리는 하늘로 향하여 치켜들고 있어 볼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노출 된상대를 장두노미라고 한다. 어쩌면 유사품 가짜인 짜통(fake imitation) 통합교단을 바라보고 지어낸 사자(死字)가 아닐까?

송구는 희한하고도 지극지극한 짜통통합의 해여! 었기에 짜통의 해여! 어서 가버리고 안녕이라 영구히 송별을 하고 싶다. 밝은 새 창문을 여는 영신은 진품 통합교단이야 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활짝 웃어라! 라는 염원을 담고 싶다. 짜통이 뭉서리가 나게 싫어지는 것은 짜통이라는 이름 사람을 속여 놓고 짜통이 스스로 짜통임을 폭로 해버리기에 신의 성실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짜통과는 상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만 악의 뿌리가 위장술 좋은 짜통이다 싶었고 천인함 폭침에서 연평도도 발로 인한 국상(國喪)이며, 전국 확산 기추구제 신고로 24만 마리 가축재산을 땅에 묻어야 하는 재앙도 알고 보면 그 본질 원인이 모두 짜통과 무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짜통 고급양복의 열풍

처가래에 한 이쁜이 시무 장로급 연령대에 그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망자 장인어른의 고급 양복, 내의, 요, 이불 등의 유물이 상속으로 우리 방을 가득 채워 놓았다. 또 어느 교회 나이 많은 여 전도사가 남편에게 평생의 소원의 마음으로 적금을 들어 백화점의 고급 오리털 점퍼를 하나 선물로 해드렸는데 한두 번을 입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으며 그 점퍼는 필자가 꼭 입어주면 소원이 없겠더라며 들고 왔다. 필자의 집은 한 때 죽은 사람의 옷 수집소가 되어버렸다. 어쩌나 이 난감한 일을, 죽은 사람의 옷에 정령이 붙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돌아간 장인의 양복과 팬티는 정말 입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님 장인의 의류를 꼭 입고 싶었다는 사명감 같은 작전세력들에 포위되어 잠시간 버티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그만 필자가 패전을 하고 말았다. 장례를 치른 분의 팬티를 입었는데 시원하다 할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지, 어느 새벽 일찍 나가야 하는 날 일어나 보니 내 의복은 온데 간데 하나도 없이 다 치워버렸고 입기 싫거나 원수 같은 짜통 고급 양복, 짜통 고급 내의만 있고 시라도 다 피어버렸다. 도리없이 어둑 어둑한 새벽에 으스스하게 무섭고 찜찜했던 짜통 고급양복에 짜통 고급내의를 한번 갈아입기 시작한 것이 도리어 보안(이명박 이긴회 종전 기념) 자존심이 그렇고 평화분교회 목사가 처갓집 망자 장인 양복을 입고 돌아왔다는 정보유출은 득 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유지를 하여가며 죽은 사람의 고급짜통 양복을 입고 광이나 한번 내어보자는 계산이었다.

3. 푸들강까지 오를뻔한 소속증명 열풍

2007. 10. 15. 통합감사예배 및 통합선언대회는 진품 통합감사예배이고 진품 통합선언대회였다. 교단도 말할 것도 없이 으뜸 진품 명품 통합교단이었다. 진품 통합교단에서 발급하는 모든 소속증명서에는 어디를 내어 밀어도 광채가 날것은 정한 이치이다.

2010. 11. 15. 여의도에서 통합예배 및 통합선언대회는 짜통 통합감사예배이고 짜통 선언대회이며 교단 명칭도 짜통 통합이었다. 발급증명서에 별건 교단 직인이 찍혀 있다고 다 교단 직인이 아니다. 짜통직인이다. 짜통 교단에서 발급되는 모든 소속증명서들은 내어보는 곳과 마다 “이상합니다.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 제출한 소속증명서에는 원지 푸들강까지가 오물을 뿌린 것 같아 모양이 나지 않아 이상합니다”라는 소리가 울려퍼지며 처처에서 들려 울 것이 뻔하다. 짜통은 짜통임을 스스로 말하기 때문이다. 짜통 통합의 해여! 안녕! 진품의 새해여! 어서 오고 영원하라.

2010. 12. 인권존중회

조직 정비, 부천 성시화 특별집회 준비

부기총 신임총회장에 장철희 목사



“부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제41회 정기총회에서 신임총회장으로 선출된 장철희 목사는 이렇게 취임 소감을 말하고 “상비부와 집행부 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오는 9월경 부천시성시화를 위한 특별집회를 개최 부천에 새로운 성령의 비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는 구랍 16일 성광교회(장철희 목사)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회장

에 장철희 목사를 선출했으며, 사무총장에는 김재우 목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이날 개회예배는 장철희 목사(상임회장)의 사회, 김장욱 목사(부기총 이사장)의 설교, 윤상조 목사(공동회장)의 축도로 순조로 진행됐다.

이러진 회의는 김정일 목사(부기총 총회장)의 사회로 열려, 총회장 인사에 이어 각부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 후에는 임원선거에 들어가 장철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다.

이어 장철희 목사는 신임 사무총장에 김재우 목사를 지명하여 임원을 받고 임원진은 차후 개선하기로 했다.

부기총은 매월 사정기도회를 통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구랍 15일에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갖고 3270포를 부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달했다.